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3) 죄에의한 타락

Our World Belongs to God



심재승 (돌트칼리지 교수)

칼빈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 교육, 기독교대학 교수 훈련과 공공신학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북미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합니다. 이 문헌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이 문헌의 소개는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한글 전문은 “<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contemporary-testimony/우리의세상은하나님의것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본문 해설

죄에 의한 타락은 창조의 선함과 함께 그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과 한계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죄는 별안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으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역함, 즉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라(요한1서 3:4).”

단락 13-17은 죄의 시작과 근본 (단락 13),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죄인 됨 (단락 14), 죄인된 인간이 온 세상에 미친 영향 (단락 15-16),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구속계획의 시작 (단락 17)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로 인해 인간 자신이 어떻게 망가졌으며, 죄의 결과가 현재 개인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죄에 관하여 기술한 본문의 내용은 전통적인 신앙고백과 같은 신학적인 해설이라기보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타락 (Fall)

13.

인간의 역사 태초에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단의 거짓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였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렸다.¹

14.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입증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의 법을 어기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므로 우리는 죽음만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유를 추구할 때 우리 자신은 사단의 율가미에 걸릴 뿐이다.
쾌락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기쁨의 선물을 잃어버린다.²

15.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킬 때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창조물들을 남용하거나 우상화한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로부터 멀어져 버렸다.³

16.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인 가족과 친구, 일과 예배, 학교와 국가, 놀이와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
죄악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인종적인 오만함에, 국가들의 교만함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함에,
물, 공기와 토양을 오염함에, 생명체를 파괴하는 곳에, 노예 소유, 살인, 폭력과 전쟁에, 우상숭배에,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함에, 그리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광적인 노력에 드러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죄의 희생자가 되어왔다.⁴

17.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스스로 구원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비록 파괴되고 상처를 입었어도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⁵



1.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을 살펴 보라. 뱀에 대하여는 창세기 3장과 함께 요한계시록 12:9와 20:2를 살펴 보라.
2. 인류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을 로마서 1:18-3:18에서 살펴 보라.
3. 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1-23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로마서 8:29, 고린도후서 3:18, 에베소서 4:22-24, 그리고 골로새서 3:10을 살펴 보라.
4. 시편 14, 53편, 아모스 1-2장, 로마서 1:28-32, 그리고 갈라디아서 5:19-21을 살펴 보라.
5. 시편 62편, 89:28-37, 로마서 5:3-11, 15:13, 히브리서 11:1을 살펴 보라.

것이다” 문서 자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적인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과 사회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해설한 것이다. 죄에 관한 전통적인 신학적 해설은 벨직 신앙고백 14-15장,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문답 3-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본문은 죄의 근원을 규명하고, 죄의 결과가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 보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속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어떻게 성화시켜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자유 추구와 죄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함’으로 변질됨, 즉 순종이 거역으로 전환되는 인간의 마음가짐으로부터 현실화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온 천하를 찌는 자’인 사단에게만 돌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유혹되어 ‘죄에 빠진’ 인간에게도 엄하게 물으신다. 이는 유혹은 받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식이 인간에게 있었음을, 또한 그러한 능력으로 마땅히 살고 행했어야 했을 삶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그러한 능력과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본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욕심에 있다. 이 욕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위치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유혹에 굴복하여 (유혹은 언제나 거짓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였다.

욕심에 유혹되어 인간은 자신의 삶의 옳음과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거역하고 마땅히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무시하였다. 유혹으로부터 죄의 실행에 이르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추구이다. 자유는 인간다운 것으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자유롭게 지으셨다. 자유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인간의 사명을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편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꿈

과 소망, 비전과 목표들을 가지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자유의 작용이고, 그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소중한 방편이 된다. 본문은 자유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자유의 이해와 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만 가지신 완전한 자유와 달리, 그의 형상으로서의 자유,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선하고 옳다고 판단하시어 정하신 기준으로 제한된 자유이다.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 정하는 자유가 아니라, 창조세상 안에서 부여된 자유이다.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라; 세상에 권위를 가지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라; 에덴의 모든 과실 열매를 먹되, 오직 선악과의 과실은 먹지 마라.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법 안에서의 자유로서, 인간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으로의 자유였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며, 아담과 하와도 자유를 추구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유가 행복의 조건임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삶의 비전으로 잘못 포장한 것이다. 욕심으로 왜곡된 삶의 비전은 인간 스스로 자유를 규정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데 대하여 인간이 “아니오, 그것은 내가 정하겠습니다”라고 반기를 든 것이다.

죄의 효과 세 가지

아담과 하와가 행한 첫 번째 죄의 책임과 결과가 인간 후손들에게 적용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창조와 구속을 공동체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날마다 입증한다.’ 본문은 현재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의 효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 “법을 어김,” “사명을 무시함”을 강조한다(단락 14). 이 세 가지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겪었던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어 실행되는 과정이다. 유혹을 받아 죄가 마음에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이 있다. 나 자신, 내 삶,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지금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기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음 등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욕심이라는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큰 힘이다. 죄의 근저에는 욕심이 있고, 욕심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반기를 들게 한다. 아담과 하와의 죄 성을 이어받는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다. 이 반기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함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교묘한 이유를 만들어 발전한다. 그래서 때로 그 반기는 신앙과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드러난다: ‘성공해야 하나님께 큰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평안과 발전을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욕심이 포장하여 왜곡시킨 비전으로 드러난다.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에서 자란 욕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

게 한다. 그래서 결국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분명한 것을 분명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본문의 결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 밖에서) 자유를 추구할 때 우리 자신은 사단의 올가미에 걸릴 뿐이다” (단락 14).

죄의 영향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죄인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결국 모든 후손을 동일한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의 죄는 당사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위치와 사명을 통해 인간이 다스려야 했을 세상 모두를 망가지게 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본문은 인간이 세상 안에서 가진 관계의 언어로 표현한다: “창조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소외되고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한다” (단락 15).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부인되어 멀어지고, 인간들 사이에 미움과 반목이 생기고, 자신 안의 양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스스로 속이게 되는 실질적이고 무서운 결과가 일상화되었다. 죄는 인간 개인과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오염시켰다: “...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창세기 3:17)”,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당하는 것을...(로마서 8:19-22)”.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사고에서 보면 부당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과 세상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로 인식하여 기록하였으며, 창조기사에서 피조물들이 세상에서 어

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초점을 둔 기능적인 언어로 쓰였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위임 받은 왕으로서 그들이 살고 다스려야 했을 장소와 대상인 세상도 그들의 죄 된 삶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망가지게 된 것이다.

만연된 죄의 결과

단락 15에서 시작된 죄의 결과는 16에 이르러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만연해 있음을 강조한다. 이 ‘모든 곳’을 열거하면서 본문은 현대 삶에서 죄 성이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는 영역들을 열거하고 있다. 가족과 친구가 대변하는 인간관계는 배타적인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을 따라 나뉘고 변질되었다. 인간관계는 처세술로 인식되고 이익집단으로 왜곡된다. 쉽게 남을 업신여기고 왕따 시키며, 스스로 소외되어 외로워 한다. 일의 현장은 불의와 불평등으로 고통이 더해가고, 새로운 산업의 형태는 사람의 노동을 새롭게 규정하기 때문에 불안을 더한다. 주일의 공예배와 삶 자체가 예배라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이해와 실천이 세속화되는 문화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잃어간다. 참된 예배와 삶의 의미를 이러한 문화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합리적인 원리를 무시하면서 억압적으로 경쟁한다. 학교는 그러한 국가의 목표를 따라서 산업의 발전과 직업훈련을 위한 준비단계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교육은 인문적인 전통을 따라서 올바른 사람을 세우는 데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효과적이고 빠른 정보의 처리와 전달로 변화하고 있다.

타락한 교육

미국에서 교육은 매우 어려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 되었다. 교육의 의미와 목표의 실종, 폭력과 총기사고와 같은 사회의 갈등들이 점점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난다. 서구의 인문적 교육의 뿌리가 깊지 않은 한국에서 문화와 교육의 변화는 서구사회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인성교육이 한국의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 되었다.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 공부를 배움의 경험이 아닌 진학과 취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축소하고 왜곡시킨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 교육환경을 그대로 두고, 가정이 인성개발을 학교와 교회에 떠맡긴 채로 인성교육이라는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할 것인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운 부모로서 경험을 통해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이 실시되는지 조사해본 적이 있다. 미국의 학교들에는 인성교육이라는 단어나 과목이나 활동이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인성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강의실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보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지혜요, 경험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고안된 공부와 사회의 체계가 하나님의 법 밖에서 추구될 때에 사람을 파멸시킨다. 청소년들 사이의 왕따 문제와 높은 청소년 자살률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이다. 왜곡된 성공과 비전으로 자란 성인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느끼는 불행함과 숨겨진 채로 자라난 열등감, 왜곡된 부모의 사랑과 절제력 부족 등을 지니고 성장한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과 사

회에 무수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향주의라는 왜곡된 비전을 정해 놓고 그것에 의하여 스스로 파멸한 것이다.

본문은 단락 16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우리 시대의 더 많은 이슈들을 거론한다. 이민의 나라로 구성된 미합중국의 성격상 인종 간의 갈등은 건국으로부터 내재된 문제이다. 그것이 최근 들어서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 크게 부상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는 국내적으로 인종갈등과 남녀갈등, 그리고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제적으로는 무역에 긴장과 군사력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종간의 갈등은 한국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이다. 지연과 학연으로 나누어진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기준에 있었던 계층 간의 분리와 갈등이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민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2세들이 한국사회에 행복하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욱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 밖에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이슈들, 불의와 불평등, 오염, 생명경시 현상, 증가하는 갑질과 폭력, 여러가지 의미의 이상승배,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함'이 암시하는 포르노와 섹스향락주의, 그리고 현실도피의 한 방법으로 가상현실추구와 감각적인 쾌락, 이 모든 것 중에서 한국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이 문서가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죄의 영향이 모든 사회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가 서구사회만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였고 그 발전이 세속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모든 문제들은 추상적인 개념의 죄가 우리에게 별로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행한 삶의 결과이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자신이 우리 죄의 희생자가 되어왔다”고 결론 짓는다. 이것은 단락 14에서 말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유를 추구할 때 우리 자신은 사단의 올가미에 걸릴 뿐이다”가 실행된 예들이다.

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사회문제들인데, 왜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 단락 14-16은 사람이 죄인 된 이후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들을 해설하고 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인간이 영적으로 죄인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이 죄인으로 사는 모든 영역이 망가진 것이라고 증거한다.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한다는 성경의 증거를,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고백한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그리고 아모스 등 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짖은 이스라엘의 죄악, 즉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죄 된 삶을 본문이 현재 사회의 언어와 예들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성경의 구속사는 창조세계 전체를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망가진 모든 세계를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하시는

역사를 담고 있다. 그 구속사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사명으로 인하여 매우 독특한 의미와 위치를 가진다. 죄인 된 인간이 그 사명을 왜곡시켜 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부패하여 망가진다 (단락 15). 부패하여 망가진 영역에 사회문제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문제들이 포함된다. 그 망가진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속한 새로운 인간, 구속된 인간을 통하여 회복하신다. 그 안에 인간의 구원의 의미와 목표가 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다.

이러한 성경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락 17이 해설하는 바와 같이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하여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파괴되고 상처를 입은 상태’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은 동기와 실행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삶을 확신하고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와 세상을 붙잡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